

# 무용수가 안무가로... 창작발레 보러오세요

광주시립무용단 중견 단원, 24일 '모던발레 페스티벌'



'발레리나·발레리노에서 안무가로...'  
 항상 무대 위에서 멋진 춤사위를 선보였던 광주시립무용단 중견 단원들이 이번에는 안무가로 변신했다.  
 주어진 배역을 소화하는 무용수의 역할에서 벗어나, 직접 스토리를 짜고, 음악을 고르고, 몸짓을 만들어내는 안무가로서의 변신은 작품을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도움을 준다.  
 단원들은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2012 모던발레 페스티벌을 통해 다채로운 소재로 작업한 창작 발레 소품을 선보인다.  
 김진이씨가 선보이는 '신데렐라 바이러스'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등 클래식 작품들의 다양한 캐릭터를 각색한 작품으로 신분 상

승에 대한 현대인의 욕망을 신데렐라를 통해 보여주는 유쾌한 발레다.  
 강병창씨가 무대에 올리는 '지젤'과 '노아르 II 진실'은 고전 발레 '지젤'을 비튼 작품이다. 병실에서 잃어버린 사랑의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알프레히트와 과거 그가 사랑했던 마틸다가 주인공으로 등장, 새로운 사랑의 길을 모색하는 발레다.  
 마지막 작품은 박승희·신옥선씨가 공동으로 안무한 'Bias-편견'이다. 무섭게 생겼다는 이유로 항상 따돌림을 받는 늑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우리사회에 만연한 편견에 대해 이야기한다.  
 세 작품에는 김선돈·최윤정·정정은·최근호·구윤지씨 등 동료 무용수들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510-933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미디어아트 이이남 올해도 새로워라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 이름 앞에는 늘 '새로움'이란 단어가 따라붙는다. 그는 '모나리자' '목죽도' 등 유명 명화를 LCD 모니터에 재생시키는 기법으로 재탄생시켰고,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통해 개인전을 열었다.  
 이이남씨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두 번째 작업실을 내고, 문화관광부 '10대 SNS, 트렌드'에 선정되는 등 새로운 예술 세계를 개척하고 있다. 또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시 기획자들을 광주로 초대, 지역 작가들을 소개하는 등 호남 화단을 알리는 가고 역할도 하고 있다.  
 지역 작가가 활동 무대로 완전히 서울 등 타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우는 많아요, 여러 지역에 작업실을 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오는 3월 문을 열게 되는 그의 논현동 작업실에는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과 세미나 장소 등을 갖춘 계획이



또 4월에는 'CIG 북경아트페어 특별 메인부스'에 작품을 선보이고, 인천국제공항에 8m짜리 대형 작품을 설치한다. 5월에는 홍콩 개인전, 아트바젤, 홍콩크리스티옥션, 인도 현대미술전, 여수엑스포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 7월에는 런던올림픽 미디어아트전에 참여하고, 9월에는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전으로 마련된 중국 중앙미술학원, 금일미술관에서 열리는 문화관광부 주관 전시에 출품한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 서울에 새 작업실... 해외 컬렉터들과 교류 광주 작업실서 지역작가·기획자들 만남 주선 美·中 등서 작품전... 런던올림픽 특별전도

다. 그가 서울에 동지를 트는 것은 해외 컬렉터들이 국내를 방문해도 대부분 광주까지 찾아오지를 않기 때문이다.  
 이씨는 "서울 작업실에서 미술기획자와 컬렉터들에게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여줄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작품을 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28일에는 광주시 남구 백운동의 이씨 작업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내 기획자 2명을 초청해 지역 작가 14명과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이들 기획자는 해외 갤러리와 작가를 연결시켜 주는 활동도 하기 때문에 지역 작가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10대 SNS, 트렌드'에도 선정됐다. 지난 2010년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사이버 전시를 연계 새로운 전시 문화로 평가받았다.  
 이씨는 올해 국내외에서 더욱 다양한 전시회도 연다. 2월 말까지 미국 뉴욕디자인센터에서 열리는 '코리아 아이'전을 시작으로 미시간대 데노스 뮤지엄 개인전, 하와이대 미술관 현대미술전 등 미국 순회전에 나선다.

이씨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 연세대 영상대학원을 나온 뒤 '아트윌튼 2008' 한국 작가로 선정됐다. 미국 스미소니언 미술관 한국관 개관 기념 초대전, 독일의 미디어 아트 전시장인 ZKM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컬렉터 올리시그(스위스)에게 작품을 판매하는 등 국제 화단에서도 주목받고 있고, 2009년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뉴미디어아트 고전회화와 현대매체의 조우'를 주제로 특강을 했고, 제3회 대한민국의미미술상 청년작가상을 받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해돋이 인상'

# 광주음협, 시민과 함께 다양한 음악활동 펼쳐

## 공연문화콘텐츠 개발·청소년음악캠프 신설

'시민이 노래하고 연주하게 하자.'  
 최근 새롭게 집행부를 꾸린 광주음악협회(회장 김남경 송원대 교수·사진)가 내건 슬로건이다. 전문음악인들이 무대에 오르는 공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음악'의 중심에 서는 것, 그게 광주 문화 인프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2일 음악협회가 발표한 2012~2014년 사업에서 눈길을 끄는 건 '시민음악운동'이다. 이를 위해 음협은 1인 1악기 운동과 동요 부르기 운동을 추진하게 될 'Head center for music teaching'을 꾸린다. 지역에 산재한 음악학원 등을 거점으

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무엇보다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음악교사 모임을 신설해 학교가 시민운동의 발원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술세미나, 연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문화운동의 결과물들은 10월께 '50대의 피아노' '100대의 드럼' 등 퍼포먼스가 가미된 시민문화축제 등을 통해 선보인다는 복안이다.  
 공연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음협의 의무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다. 광주의 정서와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오페라와 뮤제라(뮤지컬+오페라)를 제작하기 위해 작품 개발 기구를 설치, 문화체



육관광부 등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협회는 또 청소년음악캠프를 신설하고 광주음악사를 편찬하는 작업 등도 진행한다.  
 김남경 광주음협 회장은 "지금처럼 클래식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문화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직접 마리아도 생기고, 뛰어난 인재들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재단 신입직원 공개채용

3월 5~6일 접수 17일 발표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신입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이번 공채를 통해 재단 5급 2명과 계약직 1명을 뽑게 되며 1차 서류전형, 2차 영어회화 및 영어논술, 3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응시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

진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으로, 나이 및 국적 제한은 없으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판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서 제출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www.gb.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3월 5일~6일까지 광주비엔날레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오는 3월 17일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062-608-421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여행바우처 자원활동가 모집 광주문화재단 24일까지 접수

광주문화재단은 2012 여행바우처 사업에 함께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  
 여행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신체적, 사회문화적 제약 등으로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행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세 이상 55세 미만의 시민은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마감은 오는 24일까지다. 모집인원은 20명. 문의 062-670-74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2nd Wine & Dine

# Chateau Pavie '100점 만점 와인' dinner

황홀경을 부르는 최고의 와인.  
 한국 최초! 샤도 파비 오너와 함께하는 격조 높은 와인 메이커스 디너에 와인 애호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2. 3. 2 (fri) 19:30 Reception 19:00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문의 (062) 525-2111 | www.geumsoojang.com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생대일리용에서빠비를 능가하는 것은 슈발블랑으로, 품질이 아니라 가격에서만 그러하다.'  
-와인의 황제 로버트 퍼커

## Wine List

- Chateau Magneau Blanc 2006
- Chateau Monbousquet Blanc 2010
- Esprit de Pavie 2008
- Chateau Monbousquet Rouge 2009
- Chateau Pavie 2007
- Chateau Pavie 2005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보약, 흥삼은

# 북고당 한약비빔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